

충남도의회 기경위 “서울학사, 보금자리 되도록 준비해야”

우명균 기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2일 제323회 임시회 5차 회의를 열고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서울학사와 관련해 “부모 품을 떠나 낯선 서울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불편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에 대해선 “사회적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목표세대수 상향 조정까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희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도 “서울학사 부지 인근이 상가개발지역이다 보니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학사에 자녀를 입주시킨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 여부를 마지막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당진 채운지구 세대수가 15호 증가하고 주민센터가 빠지면서 사업비는 감소했다”며 “추진 과정에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순 있지만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미래통합당)은 “작년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음에도 이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낙후한 지역경제에 116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3000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좋은 기회인만큼 부여군과 소통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하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에서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공유하고 있다”며 “도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미진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은 “충남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채무규모가 꽤 되는 만큼 자금을 차입함에도 상품특성 및 이율을 꼼꼼히 따져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기관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별 개발공사 부채비율과 경영수익분석 내역서 등을 참고해서 부족한 점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은 또 “내포신도시 내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등 중요한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정주여건이 뛰어난 신도시가 되도록 도민과 항상 소통하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충남개발공사는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도민이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의원들이 주신 고견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학사 보금자리로 준비해야”

도의회 기경위, 충개공 등 주요업무 청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2일 제323회 임시회 5차 회의를 열고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다음달 준공을 앞둔 서울학사와 관련해 “부모 품을 떠나 낯선 서울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불편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에 대해선 “사회적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목표세대수 상향조정까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희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도 “서울학사 부지 인근이 상가개발지역이다 보니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학사에 자녀를 입주시킨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 여부를 마지막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당진 채운지구 세대수가 15호 증가하고 주민센터가 빠지면서 사업비는 감소했다”며 “추진과정에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순

있지만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미래통합당)은 “작년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음에도 이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낙후한 지역경제에 116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3000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좋은 기회인만큼 부여군과 소통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하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에서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공유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미진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기관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별 개발공사 부채비율과 경영수익분석 내역서 등을 참고해서 부족한 점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석지후 기자

116 X 195 mm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추진 흔들림 없어야"

최신웅 기자

충남도의회 기경위, 충남개발공사 등 주요업무 청취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2일 제323회 임시회 5차 회의를 열고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과 서울학사에 대한 안전여부 점검을 당부했다.

이공휘(더불어민주당·천안4) 의원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의 당진 채운지구 세대수가 15호 증가하고 주민센터가 빠지면서 사업비는 감소했다"며 "추진과정에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순 있지만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학사 부지 인근이 상가개발지역이다 보니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학사에 자녀를 입주시킨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정의당·비례)도 다음달 준공을 앞둔 서울학사와 관련해 "부모 품을 떠나 낯선 서울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불편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에 대해선 "사회적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목표세대수 상향조정까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충남개발공사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한일 위원(미래통합당·예산1)은 "충남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채무규모가 꽤 되는 만큼 자금을 차입함에도 상품특성 및 이율을 꼼꼼히 따져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승만 위원(더불어민주당·홍성1)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기관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별 개발공사 부채비율과 경영수익분석 내역서 등을 참고해서 부족한 점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길연 위원(미래통합당·부여2)은 "작년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음에도 이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낙후한 지역경제에 116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3000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좋은 기회인 만큼 부여군과 소통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하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충남도의회 기경위 "서울학사, 보금자리 되도록 준비해야"

충남도의회 기경위 “서울학사, 보금자리 되도록 준비해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현)는 22일 제323회 임시회 5차 회의를 열고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다음달 준공을 앞둔 서울학사와 관련해 “부모 품을 떠나 낯선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불편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에 대해선 “사회적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목표세대수 상향조정까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도 “서울학사 부지 인근이 상가 개발지역이다 보니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학사에 자녀를 입주시킨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 여부를 마지막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당진 채운지구 세대수가 15호 증가하고 주민센터가 빠지면서 사업비는 감소했다”며 “추진과정에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순 있지만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미래통합당)은 “작년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음에도 이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낙후한 지역경제에 116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3000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좋은 기회인만큼 부여군과 소통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하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공유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도민의 주거복지 위해 미진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채무규모가 꽤 되는 만큼 자금을 차입함에도 상품특성 및 이율을 꼼꼼히 따져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기경위 “서울학사, 보금자리 되도록 준비해야”

2020 07 22 ()

충남도의회 기경위 “서울학사, 보금자리 되도록 준비해야”

2020 07 22 ()

MBS

충남도의회 기경위, “서울학사 보금자리 되도록 준비해야”

2020 07 22 ()

CTN 충청탐뉴스

충남도의회 기경위 "서울학사, 보금자리 되도록 준비해야"

2020 07 22 ()

충남도의회 기경위 “서울학사, 보금자리 되도록 준비해야”

2020 07 22 ()

충남도의회, “서울학사, 보금자리 되도록 준비해야”

충남도의회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nTV

2020 07 22 ()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2 ()



충남도의회 기경위 “충남TP 연구성과 관내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2 ()



충남도의회 복환위, 코로나 총력대응·적극행정 조치 주문

2020 07 22 ()

일간투데이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청와대·정부 세종시 이전’환영

2020 07 22 ()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국회 및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제안, 적극 환영”